‘주간아이돌’ ver2., 정형돈 · 데프콘 아성을 넘어라

개편 기자간담회서 1대 MC 부담감 드러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이돌 프로그램 지향

“부담감을 안고 가려고 한다. 이 부담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한다”.

개그맨 유세윤이 ‘주간아이돌’ 2대 MC로 발탁된 소감을 이처럼 밝혔다. 김신영 또한 “전임 MC들이 쌓았던 명성을 깎아먹지 않는 게 목표”라며 전임 MC들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놨다.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서울호텔에서 열린 케이블채널 MBC에브리원 ‘주간아이돌’ 개편 기자간담회의 또 다른 주인공은 1대 MC인 정형돈과 데프콘이었다. 이상민, 김신영, 유세윤 등 2대 MC들은 이들에 대한 부담감을 솔직히 드러냈다.

2011년 시작한 ‘주간아이돌’은 햇수로 8년 동안 다양한 아이돌을 소개했다. 지금껏 ‘주간아이돌’을 방문한 아이돌은 152팀으로 총 696명에 달한다. ‘도니코니’란 애칭으로 불린 정형돈과 데프콘의 힘이 컸다. 출연자들의 숨은 끼와 재능을 자연스럽게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때문에 이번 MC 교체에 대해 저항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범 제작센터장은 ‘새로운 활력’을 개편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변화에 대한 모색이 있었다”면서 “지난 7년 동안 시청자도 성장을 하고, 출연했던 아이돌 멤버도 변화했다. 미래에 대한 대비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시청자와 좀 더 오래가기 위한 에너지를 수혈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반발에 대해서도 “장수 프로그램의 숙명”이라며 “전임 MC들과 협의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2대 MC의 어깨는 무겁다. 과거 혼성그룹 룰라의 리더이자 음반 제작자였던 이상민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MC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MBC에브리원 ‘쇼챔피언’ MC이자 아이돌 멤버들과 실제 친분이 깊은 김신영은 “수요일의 여자가 되겠다”고 너스레를 떨며 방탄소년단과 오마이걸, 트와이스를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편된 ‘주간아이돌’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이돌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이는 출연하는 아이돌 멤버에게도 적용된다. 김신영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프로그램을 추구한다”면서 “기존 프로그램에선 개인기가 중요했다. 개인기가 없어도 리액션만으로도 편하게 놀다갈 수 있는, ‘본격 혜자방송’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를 위해 2배속 댄스 변형 등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다.

조 센터장은 “새로운 시그니처 코너가 될 수 있는 코너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개발하고 있다. 새 MC 체제에서도 그렇게 갈 것”이라며 “새로운 아티스트에 대한 장도 만들고 있다. 신인과 톱 아이돌, 전 세대가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6시 개편 후 첫 방송했다.

10%대 ‘우만기’ vs 1%대 ‘유혹자’, 양극화된 드라마 시청률

월화드라마 시청률이 양극화됐다.

1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 4회는 10.9%의 전국시청률을 나타냈다. 9일 방송된 3회(11.2%)보다는 소폭 하락한 시청률이지만 월화드라마 중 홀로 두자릿수 시청률을 유지하며 순항중이다.

비슷한 시간대 방송된 SBS ‘키스 먼저 할까요’는 7.6, 9.3%로, MBC ‘위대한 유혹자’는 2%, 1.9%로 집계됐다.

월화드라마 1위인 ‘우리가 만난 기적’보다 ‘위대한 유혹자’의 시청률에 더욱 눈길이 간다. 지난해 ‘맨홀’이 17년 만에 1%대 시청률을 달성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1%대 시청률의 드라마가 3개나 나왔다. 특히 MBC는 ‘20세기 소년 소녀’에 이어 ‘위대한 유혹자’까지 1%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굴욕을 맛봤다.

더이상 1%대의 시청률이 놀랍지 않아졌다. 불과 2년 전인 2016년에 최고 시청률 38.8%를 기록한 ‘태양의 후예’가 주중드라마로 방송됐던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앞서 지상파 시청률이 저조해진 원인으로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채널의 확대가 꼽혔다. 같은 시간대에 케이블 채널에서도 드라마가 방송되며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것. 그러나 tvN 월화드라마 ‘시를 잊은 그대에게’는 9일 0.9%로 최저 시청률을 기록하며 별다른 위협을 못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는 드라마라는 장르 자체를 버린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만난 기적’의 시청률 기록이 드라마계에 하나의 희망이 된다. 4회에서 조금 삐긋하긴 했지만 재미있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시청률이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것.

여가 생활을 메울 수 있는 콘텐츠도 많아지고,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진만큼 특정 시간대에 시청자를 TV앞으로 불러모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도 한가지 확실한 건 시청자는 재미있는 콘텐츠는 찾아본단 것이다.

제일 잘 나오는 주중드라마 시청률이 10%대일때도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인생’은 40%대가 넘는 시청률로 새 역사를 썼다. 드라마 제작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시청자를 안방극장에 불러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종신X유시민X장성규, JTBC ‘방구석1열’ 5월 첫방송

JT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방구석1열’이 오는 5월에 첫 공개된다.

‘방구석1열’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 영화와 인문학을 토크로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영화를 연출한 감독, 인문학 전문가 등이 출연해 영화를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쉽고 재미있는 수다로 풀어본다.

영화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캐스팅 비화 등 쉽게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소개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JTBC 영화 예능 프로그램 ‘전체관람가’에서도 MC로 활약한 바 있는 가수 윤종신과 JTBC 아나운서 장성규가 맡는다. 토크패널로 참여하는 유시민 작가는 첫 회에 소개될 영화 두 편을 직접 고를 정도로 숨은 영화광이다. 변영주 감독과 정윤철 감독은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에 힘을 더할 예정이며 지식과 입담, 예능감으로 뭉친 이들의 수다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코너인 ‘띵작매치’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영화계와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두 작품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두 영화의 연결고리를 파헤친다. 해시태그(#)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다양한 인문학적 수다를 통해 인기요인을 살펴본다.

두 번째 코너인 ‘머글랭밥차’에서는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콘서트, 뮤지컬, 공연, 드라마 등 문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문화계의 소문난 밥차’에 모여 문화계 인사들이 즐거운 ‘먹방’과 함께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방구석1열’은 ‘전체관람가’의 김미연 PD가 연출을 맡으며 오는 5월 초에 첫 방송된다.

주말극 점령한 전현직 걸그룹

배우 유이부터 신예 엘키까지, 전현직 걸그룹 스타가 주말극을 사로잡았다.

주말드라마에 활력을 더하는 연기돌이 있다. 전현직 걸그룹 스타들이 어엿한 배우로서 주말드라마 보는 재미를 책임지고 있는 것. SBS ‘착한마녀전’, MBC ‘네릴남편 오작두’, ‘부잣집 아들’에서 남다른 끼를 발산하는 연기돌의 활약이 눈부시다. 이들의 극중 역할과 존재감을 살펴봤다.

라붐 솔빈과 AOA 혜정은 ‘착한마녀전’에서 각각 봉천지와 주예빈 역을 맡았다. 두 인물은 항공사 승무원이자 차선희(이다해 분)와 다각도로 얽혀 있어 극중 웃음과 긴장감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솔빈과 혜정은 단정한 미모와 능청스러운 연기력으로 캐릭터의 매력을 더하는 중이다.

CLC 엘키는 ‘부잣집 아들’에서 중국 유학생 몽몽 역으로 분해 김명하(김민규 분)와 귀여운 케미스트리를 선보이고 있다. 아직은 서툰 한국어 실력도 엘키 만의 엉뚱한 매력으로 사랑스럽게 포장돼 전반적인 극의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고 있어 앞으로 나올 캐릭터의 성장이 더 기대된다.

애프터스쿨로 활동했던 유이, 시크릿 멤버였던 한선화는 이제 연기돌 아닌 배우로서 인식되고 있다. 두 사람은 ‘네릴남편 오작두’를 통해 연적으로 만났고, 실제 나이보다 많은 30대 중반을 연기하고 있다. 유이는 프로덕션 PD 한승주, 한선화는 국악인 장은조 역을 색다르게 소화한다.

최근 방송분에서 장은조는 오작두(김강우 분)로부터 벽을 느끼고 배신감에 휩싸인 채 한승주에게 접근했다. 한선화의 흑화와 유이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예고된 만큼 두 사람의 짜릿한 연기 대결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주말극의 특성 상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그 중에는 중심 스토리를 이끌어가거나 풋풋한 느낌을 전해주는 젊은 배우들이 있다.

솔빈, 혜정, 엘키, 유이, 한선화의 명품 연기가 더욱 기대된다.

오늘의 운세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음력 2월 27일)

▶쥐띠 목적한 일을 성취할 운이 점점 커진다. 근면하고 성실한 태도로 현재 위치에서 전진하면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자식 걱정이 뒤따를 수 있다. 3, 5, 10월생 각종 모임으로 과로 운전하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 늦은 밤 운전은 삼감이 좋겠다.

▶소띠 그동안 혈육 간 다툼으로 불편이 따랐으니 화해해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어떨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던가. 지난 일 훌훌 털고 새롭게 헤쳐 나갈 때다. 자식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일이다. 과음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호랑이띠 내 마음을 내가 갈고 닦아야지 남의 말에 의존하는 등 나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 큰 그릇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ㄱ, ㅇ, ㅊ 성씨 음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으니 이성을 잃지 말고 선후배를 대하라.

▶토끼띠 지금은 가족과 뜻을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 2, 5, 7월생 애인과 모처럼 만난 기쁨에 취해 내뱉은 한마디 말이 불씨가 될 수 있으니 언행을 신경 쓰라. 생각이 다른 곳에 머문다면 먹구름이 다가오니 손윗사람 말 되새겨 들으라.

▶용띠 상대 말에 끌리지 말고, 물리칠 수 있는 과감한 성격이 당신을 성공의 지름길로 이끈다. ㅁ, ㅅ, ㅇ 성씨 약하면 약한 만큼 갈등이 뒤따를 수 있다. 한길을 택해 가정을 이끌라. 모처럼 모인 가족, 친지가 화합하지 못 하고 언쟁할 듯하다.

▶뱀띠 비가 온다 해도 항상 오는 것이 아니고, 때가 돼야 오는 것이니 시기를 잘 포착하라. 처음부터 갈 수 없는 길이라면 가지 말라. 도중에 되돌아오면 시간과 다리만 아플 뿐이다. 1, 4, 9월생 윗사람 조언이 보약이 되니 쓰더라도 참고 먹으라.

▶말띠 진행하는 사업에 자신감을 가지라. 부부 뜻이 일치할 때 성취할 수 있다. 말부터 앞세우지 말고, 실천부터 하라. 욕심을 앞세우지 말라. 손실이 따른다. 4, 8, 11월생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돼라.

▶양띠 모든 것을 쏟아놓아도 힘겨운 상태구나. 내 능력은 누구보다도 내가 안다. 현실로 돌아가 ㅁ, ㅅ, ㅊ 성씨 조언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먼 길 떠나면 무거운 마음을 벗어던지고 운전에만 신경 써야 한다. 금전으로 친지와 의견 충돌할 듯하다.

▶원숭이띠 ㅂ, ㅇ, ㅈ 성씨 현재 위치에서 힘들더라도 인내하라. 남을 밟고 일어서려 하지 말라.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바라는 것이 좋겠다. 가족 중 신병으로 고생하는 자는 차차 효험이 있겠다.

▶닭띠 조언해주는 것도 좋지만, 친구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음주로 인해 오랜만에 친구 모임에서 추태 아닌 추태를 보일 수 있다. 자신은 자신이 다스리라. ㄱ, ㅂ, ㅈ 성씨는 외출을 삼가라. 특히 건강에 주의하라.

▶개띠 자기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면서 걷고 있는 격이다. 목표 있는 삶을 설계하라. 길이 있다. ㅇ, ㅊ, ㅎ 성씨 3, 4, 7월생은 인간관계에서 회의를 느끼는 격이다.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 마음을 딴 곳으로 돌리라. 가족과 뜻을 합치는 것이 최상이다.

▶돼지띠 오늘만이라도 모든 일을 잊고 휴식하라. 일에 연연하면 모처럼 가족과 만남에서 즐거움이 헛될 수 있다. 분위기 파악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3, 5, 9월생 형제, 친척에게 도움 받을 일 있으니 평소 잘 챙기라. 남쪽과 서쪽이 길하다.